“의천스님 고려속장경 高麗敎藏이 바른 표기”

김영태교수 퇴임기념 강연회서 주장

‘지장스님=김교각=신라왕자’ 도 사실무근

“대각국사 의천(義天 · 1055~1101) 스님이 삼장(三藏) 주석서인 장소(章疏)만을 수집-간행한 〈속장경〉은 〈고려교장 · 高麗敎藏〉으로 명명해야 옳다”

지난 5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열린 ‘정년퇴임 기념강연회’에서 김영태교수는 〈고려속장경 · 高麗續藏經〉으로 알려진 의천스님의 전적을 〈고려교장〉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장스님과 동일인이며 신라왕자로 알려진 김교각은 중국이 왜곡시킨 불교사이며, 고구려 안원왕의 연호로 알려진 ‘연가(延嘉)’는 장수왕의 연호라고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김교수는 ‘대각국사의 〈고려교장〉’ 제목의 강연에서 “〈고려속장경〉 · 의천의 〈속장〉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며 “스님의 현존 저술 〈신편제종교장총록〉 〈대각국사문집〉에서 ‘속장경’ ‘속장’이라는 말을 찾아 볼수가 없고 ‘교장’이라 쓰고 있음을 보게된다”고 밝혔다.

‘교장’이란 여러 경교(經敎)와 종학(宗學)의 주석 저술인 장소(章疏)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총서로 묶은 전적을 지칭하는 말. 김교수는 “‘속장’이란 어디까지나 교장의 불전적 성격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된 불전의 총서를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의천스님의 총서를 ‘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며 ‘교장’이 고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교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박상국 문화재연구소 실장도 ‘의천의 〈신편제종교총록〉편찬과 간행’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의천스님은 〈교장〉을 집성-간행하기 위해 20여년간 ‘장소’를 수집하고 흥왕사 교장도감을 설치해 삼장(三藏) 주석서 1010종 4740권을 담은 교장을 간행했다.

또한 김교수는 ‘당(唐)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에서 “지장선사와 김교각은 역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며 696년에 태어난 신라 성덕왕의 말아들 김수충(金守忠)이 김교각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장선사의 행적이 남아있는 문헌중 현존 최고서(最古書)인 〈구화산화성사기 · 九華山華成寺記〉에서 ‘신라왕자김씨근속(新羅王子金氏近屬)’이라는 8자의 사료에서는 신라의 왕족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성덕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702년이며 이때 성덕왕의 나이는 10대 초반”이라며 “김교각이 성덕왕의 아들 김수충이라면 성덕왕이 10세도 되지 않았을 때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장과 김교각이 동일 인물이라는 기록은 1983년에 쓰여진 〈구화산지〉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 사료 근거로 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교수는 국보 119호 금동여래입상의 명문에 나온 ‘연가(延嘉)’ 연호가 사용된 시기는 종래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구려 안원왕(531~545) 대가 아니고 장수왕(413~419)의 연호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연가의 의미를 풀이하면 ‘선왕의 훌륭한 가덕(嘉德)을 길이 이어 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장수왕이 왕위에 오를 때, 부왕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겸허한 자세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연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인터뷰 불교사학 새지평 연 **김영태** 교수

“한국불교 고전연구에 여생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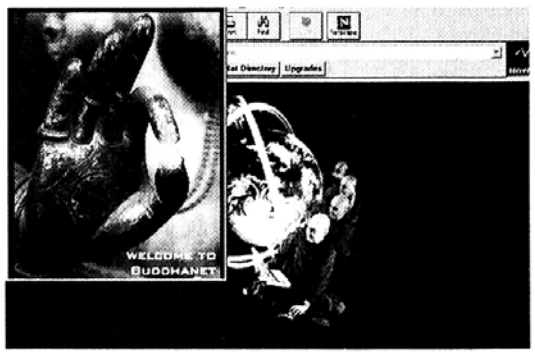
“교수직이란 제도권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임하면 제도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한국불교 고전 번역-연구에 매진할 작정입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동국대를 정년퇴임하는 왕봉(旺峰) 김영태교수(65)는 정년퇴임 후에도 〈삼국유사〉 〈균여전〉 등 불교 고전과 불교 금석문을 새롭게 해석하며 한국불교사를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1965년 동국대와 인연을 맺은 김교수는 불교대학 학장, 불교문화연구원 소장, 불교학회 회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34권의 저술과 2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삼국유사 연구를 통한 불교사학 연구는 한국불교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 고전이 잘못 번역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교수는 “후학들은 항상 고증과 주석에 철저한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는 학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후학들의 학문 자세를 당부했다.

김영태교수는 이번 퇴임강연회에 이어 1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퇴임식에는 동료, 후학들의 150여편의 논문이 수록된 〈한국불교사 논집〉(불지사 刊)의 봉정식도 함께 열린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호주불교 발전 가능성 한눈에

부다넷

최근 급성장한 호주 불교계를 조망할 수 있는 ‘부다넷’사이트는 파나바로스님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호주불교를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호주에서 진행되는 불교관련 세미나와 명상센터, 행사, 불법강좌 등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불교 온라인 잡지인 〈부다진(Buddhazine)〉, 명상의 기법과 원리 등을 설명하는 ‘명상’, 〈법구경〉 남방불교 · 대승불교 · 선불교 · 명상 등 다양한 불교사상을 기록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또 다마카 스님이 편집한 불교관련 용어집인 〈달마데이터〉, 호주불교계의 소식지인 〈프리 북(Free Book)〉, 불교의 전파경로 · 각종 불교교단 · 불교 종주국과 불교문화들을 기록한 ‘불교의 세계’ 등이 있다.

부다넷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컴퓨터로 로딩(가져오기) 할 수 있으며, ‘대화방’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http://impluse.hawkesbury.uws.edu.au/BuddhaNet/budnetp.htm

양국불교 문화비교 ‘원형찾기’

동국대-용곡대 ‘한일전통문화…’ 학술회의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일본 용곡대(학장 기타바타)가 10일 용곡대에서 한 · 일불교의 문화와 사상 등을 비교-연구하는 제1회 ‘한일전통문화 비교-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의 계율 · 유식 · 화엄 · 토착신앙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는 소중한 자리였다.

송석구 총장은 ‘한국불교의 화(和)사상’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현대의 사회 풍조는 권력의 절대성 물질의 실체성 자기의 고정불변성을 고집하는 데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중생이 집착만 떨쳐버리면 그대로 청정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형근박사(前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유식사상과 그 문화’에서 “중국 유식학을 수용한 한국불교는 중국의 배타적인 유식학과는 달리 ‘원융(圓融) 유식학’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실을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오박사에 따르면 유식학을 처음 수용한 신라 원측스님(圓測 · 613~696)이 삼론종 · 법상종계 유식학을 두루 공부했기 때문에 원융적 유식학으로 발전했다는 것. 또 “신라승이 3차례에 걸쳐 일본에 유식학을 전해주었다”며 “세번째 전래자 지봉지영의 법제자 현방 대(代)에서 일본 유식학이 꽃을 피웠다”고 지적했다.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부)도 ‘한국불교 계율사상의 변천’에서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자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없다는 이타적 보살도와 계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없다는 자리적 수행”이라며 “이것은 일본의 초기 불교와 달리 계행과 지혜가 겸비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올해 1월부터 동국대와 용곡대가 공동 추진하는 ‘한일불교문화 비교-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렸다. 99년까지 3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한 · 일 불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정토 · 화엄 · 유식 등의 원형을 찾고 문화 · 예술 등을 비교해 세 차례 학술회의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학술단신

15일 원효학회 토론회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원효사상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15~20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가 ‘원효학, 어디까지 왔나’ 김용표교수(동국대)가 ‘불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조성택교수(뉴욕주립대)가 ‘원효사상 해석 방법론’ 전현교수(시카고대학)가 ‘기독교와의 만남’ 이명섭교수(성균관대)가 ‘서양철학과의 만남’ 등을 발표한다.

(02)260-3835

원전 연구과정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원전전문학림 동계 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강좌에는 지관스님이 ‘조선시대 고승비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을 강독하며 ‘구사론’(이종철) ‘수습차제(修習次第)’(허일범) 등의 ▲불교원전연구과정이 마련된다. 또 범어, 한문, 팔리어, 티벳어 등 ▲불교어학 연수과정도 개설된다.

각 과정 수강기간은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0주간. (02)765-9602

국제소식

“자비사상은 사회윤리 핵심”

안옥선박사, 성철선사상硏 강좌서 밝혀

불교 윤리의 핵심인 ‘자비’. 자비의 개념을 사회윤리에 적극 도입할 때 이상적인 사회윤리관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옥선박사(전남대 철학과 강사)는 성철선사상 연구원이 마련한 제5회 백련불교아카데미 강좌에서 ‘불교의 윤리와 페미니즘의 보살핌의 윤리’을 발표하고 “불교 윤리는 자비의 대상, 과정,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데 비해, 페미니즘에서 나온 보살핌의 윤리는 보살핌의 대상과 과정에 몰입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이나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자비는 따라서 결과에 대해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반면 보살핌은 타자와 보살핌 자체에의 몰입이 요구되기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된다는 것.

따라서 “연기설과 윤회설이 수용된 자비의 윤리는 공간적 · 시간적으로 자비의 대상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어, 보살핌의 윤리가 갖는 편협성을 극복해 줄 것”이라고 밝힌 안옥선박사는 “자비의 윤리관이 자신, 타인 등 모든 대상에게 투영될 때 이상적 사회윤리관이 완성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히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불교는 나의 삶에 해답을 준다”

佛배우 잔 모로 티벳불교 심취

프랑스 원로 여배우 잔 모로(70)가 요즘 티벳불교에 빠져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 최근호에 따르면 모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화제인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벳 서(書)〉 저자 소기알 린포체를 만나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

모로는 “94년 린포체의 책을 읽은 뒤 그와 만나고 싶었다”며 “낙원에서 쫓겨난 영혼의 유랑자인 서양인에게 불교는 하나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불교에 심취한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모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날 그날 설법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모로는 ‘연인들’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등의 영화로 국내 올드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 여배우.

등산객들 티벳 접경 루트 회피

중국정부 소수민족 억압 ‘시위’

에베레스트 등산객들이 고의로 티벳 접경 루트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티벳 등 소수민족을 억압해온 중국 정부에 등산객들이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길은 보통 네팔의 남부 루트와 티벳의 북부 루트가 주로 사용되어 왔고, 외국 등산객들은 이 경로를 이동하며 통행료, 셀파 임금, 숙식 등 대략 7천5백만원(미화 64,000달러) 정도를 소비한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등산객의 ‘보이콧 운동’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티벳 접경지역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가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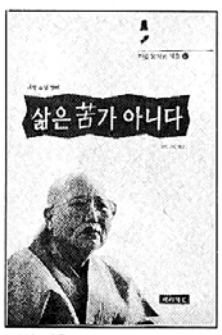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마음 맑히는 책들 ②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